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미국내 최초의 공립고등학교인 보스톤라틴고등학교는 매사추세츠내 최고 고등학교로 선정됐다

유에스 뉴스 선정, MA주 공립 고등학교 또 미국내 최고

매사추세츠 공립고교 전국 상위 25%내 가장 많아
미국내 첫 공립고 보스톤라틴 매사추세츠 1위 고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공립고등학교가 또 다시 미국내 최고의 학군인 것을 증명했다. 유에스뉴스(US News & World Report)

가 29일 발표한 2023년 미국내 최고 공립고등학교순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여전히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미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립고등학교 전국순위에 따르면 보스톤 라틴고교(50)와 파이니어벨리차이니스이머전차터스쿨(57) 두개 학교가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비록 100위 안에 든 학교는 적지만 매사추세츠 주내 고등학교 47%가 전체 상위 25% 안에 선정됐다. 2위는 커네티컷으로 44%의 공립학교가 상위 25%에 들었다. 유에스뉴스 순위 선정 ▶▶7면으로 계속

민주 평통 보스톤 협의회 제21기 9월 1일 출범

28명 새로 임명해 기존 25명과 총 53명 평통자문위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은희 평통간사, 편집부 =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평통) 제 21기가 9월 1일 출범한다.

21기 보스톤 협의회 회장으로 임명된 한문수 라셀대학 경제학 교수는 한인회 수석부회장, 민주평통 20기 상임위원, 특별위원, 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지역 한인사회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최근 유공제외동포로 국민포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수상한 바있다.

한문수 회장은 "21기 보스톤에서는 더 많은 차세대자문위원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넓은 시야로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자문하고 공공외교에 앞장서는 21기 보스톤 협의회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1기에 활동하게 될 보 ▶▶3면으로 계속

KJS
LAW OFFICE
KIJU JOSEPH SUNG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통 2기 보스톤협의회장에 한문수씨 임명

미주부의장에는 강일한 전 LA 한인상공회의소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장에 한문수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한문수 신임회장은 지난 20기 시작과 더불어 미주지역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고려대 및 미네소타대학을 거쳐 현재 러셀 및 노스쇼어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한 신임회장은 38대 한인회 수석부회장, 평통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10여년간의 한인사회 봉사를 인정받아 유공재외동포 대통령 표창을 수상기도 했다.

한편, 평통 사무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통 미주부의장에는 강일한 전 LA 한인상공회의소장이 임명됐다. 강 회장의 내정설을 두고 민주평통 사무처가 반박보도자료까지 내는 등 한때 소란이 있었으나 당초 알려진 대로 강일한 전 LA 한인상공회의소장이 임명됐다.

20개 지역 미주지역 협의회장중 워싱턴과 시애틀, 필라델피아 등 3개지역에서 여성회장이 임명됐으며 나머지 17개 협의회장은 남성회장이 임명됐다.

평통은 29일(한국시간) 미주부의장 및 미주지역회의 협의회장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한다.

다음은 미주지역회의 20개 협의회장 명단이다.

△한린다(워싱턴 협의회장), △박호성(뉴욕 협의회장), △이주향(필라델피아 협의회장), △



한문수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장

한문수(보스톤 협의회장), △이용태(로스앤젤레스 협의회장), △설증혁(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장), △김형선(휴스턴 협의회장), △오원성(댈러스 협의회장), △오영록(애틀랜타 협의회장), △스티브서(마이애미 협의회장), △박봉룡(하와이 협의회장), △최점균(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 △곽인환(덴버 협의회장), △김수영(시애틀 협의회장), △김길영(시카고 협의회장), △유건인(토론토 협의회장), △배문수(밴쿠버 협의회장), △서주일(브라질 협의회장), △박래곤(중미 카리브 협의회장), △구광모(남미서부 협의회장)

bostonkorean@hotmail.com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21,000명 위촉

김관용 수석부의장 유임, 미주 부의장에 강일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석열 대통령은 8월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제21기 자문위원 21,000명을 위촉했다.

평통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현 수석부의장을 유임시키고, 국내외 부의장 25명을 포함한 운영위원 48명, 분과위원장 9명, 국내외 협의회장 273명, 상임위원 466명도 이날 함께 임명했다.

미주 부의장에는 평통 사무처가 내정을 부인하며 반박보도자료까지 냈던 강일한 전 LA 한인상공회의소장이 그대로 임명됐다. 보스톤 평통회장에는 한문수 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은 국회의

원, 지자체장, 정당대표, 주무관청의 장, 이북5도지사 및 주요단체(이상 국내위원)와 재외 공관장(해외위원)의 추천을 받거나 사무처장이 제청한 사람들이다.

평통 21기 자문위원은 총 21,000명으로 20기 보다 1,000명(5%)이 늘었다. 자문위원은 국내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288명, 국내 직능대표로 전국 17개 시도와 이북5도 출신인사 등 13,677명, 해외대표는 136개국 4,0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자문위원 중 여성은 6,257명(35.3%)이며 45세 이하 청년은 4,871명(27.5%)이다. 또한 자문위원 중 20기에 이어 계속 연임된 자문위원은 6,238명(35.2%)이고, 21기 신규로 위촉된 자문위원은 11,474명(64.8%)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SEOUL SEORIM KIM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eo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내셔널그리드에 이어 에버소스도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에너지 효율 클리어리절트 이용 때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회사인 에버소스와 언털이 고객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벌링턴 소재 소프트웨어 회사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Progress Software)가 만든 데이터전송 프로그램의 결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주 매사추세츠

의 최대 유틸리티 회사인 내셔널그리드도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유틸리티 회사들은 매사추세츠 내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을 대신해 운영하는 외주업체인 클리어리절트(CLEAResult) 고객들이다. 클리어리절트는 고객들간의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프로그레스소프트웨

어의 데이터전송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지난 5월 프로그레스는 자체 프로그램에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어 사이버 범죄조직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객사에게 알렸었다.

에버소스측은 유출된 정보가 이름과 주소, 연락처, 그리고 어카운트 번호, 사용량 등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번호, 크레딧 정보, 은행어카운트 번호 등의 민

감한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에버소스는 고객들의 어카운트에 비 정상적인 활동이 있는지 점검 중이다.

뉴햄프셔의 회사 언털은 피치버그와 루넨버그 등 일부 타운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또한 클리어리절트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약 10명 정도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매사추세츠 M&T 은행도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의 무빗(Movit)이라는 파일전송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M&T 은행 측은 고객 이름, 주소 그리고 계좌번호가 노출됐으며 즉각 결함을 패치했다고 밝혔다.

독일 시장연구회사 콘브리핑리서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1천개가 넘는 조직이 프로그레스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며 이중 대부분인 80여 업체가 미국 조직이라고 밝혔다.

이중 약 30개 업체는 매사추세츠에 위치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조직은 매사추세츠 보건복지부, 매스뮤추얼보험사, 포레스터 리서치, 뉴앙스 커뮤니케이션, 케임브리지 트러스트, TJX 등이다.



민주 평등 보스턴 협의회 제2기 9월 1일 출범

▶▶1면에 이어서

스턴 협의회 자문위원은 25명의 연임위원과 28명의 신규위원 등 총 53명이며 임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2기 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김덕수, 김보람, 김상엽, 김성혁, 김순호, 김승연, 김영환, 김우혁, 김정기, 남궁연, 남성한, 박상원, 박선우, 박재미, 박진영, 박찬모, 박해원, 오은희, 유진선, 유현경, 윤병준, 이기환, 이길자, 이석원, 이시원, 이예복, 이제봉, 이주원, 이지복(홍지복), 이한나, 이현경, 이호은, 장수인, 장영수, 장우석, 장인숙, 장진섭, 정문철, 정신영, 정지영, 정혜정, 정희연, 조미나, 지상욱, 최은경, 한문수, 한선우, 한순용, 한윤영, 함혜란, 홍원섭, 홍진섭, 황규령.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여름동안 폐쇄됐던 섬너터널 9월 1일 다시 개통

향후 몇 달간 주말에는 다시 폐쇄해 작업 계속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7월 초부터 터널 내부수리를 위해 폐쇄됐던 섬너터널(Sumner Tunnel)이 9월 1일부터 다시 개통된다.

교통부는 90여년이 되어 낡은 이 터널을 현대화하기 위해 7월 5일 폐쇄 이후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2달동안 약 700여개의 천정 패널이 교체됐으며 터널 내부조명을 LED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환풍기 시스템도 설치됐으며 안전을 대비한 화염방지 보드설치와 폭풍우시 물을 퍼내는 펌프도 설치됐다.

매사추세츠교통국 조나단 걸리버 국장은 이번 폐쇄로 인해 엔지니어들은 터널내부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으며 향후 폐쇄 일정과 내부보수 공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터널의 통행은 이번주 금요일부터 재개 되지만 앞으로 9월 15일 주말, 9월 29일 주말, 10월 20일 주말, 10월 27일 주말, 11월 3일 주말, 그리고 11월 10일 주말에는 다시 폐쇄돼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걸리버 국장은 올해 천정 보수수리 교체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차량이 통과하는 터널 바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폐쇄일정은 아직도 조율 중이며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그린라인 연장선 유니온스퀘어역 25일간 폐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그린라인 연장선인 유니온스퀘어역이 9월 18일부터 25일간 맥그레스하이웨이 선상의 스콰이어스브리지(Squires Bridge) 수리공사를 위해 폐쇄된다.

당초 교통당국은 7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45일간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폐쇄 기간을 9월로 연장했다.

이후 교통부는 공사기간을 거의 절반 가량 단축한 25일로 줄였다. 교통부는 전철대신 86, 87, 91번 그리고 CT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머빌 주요 관계자들은 왜 교통부가 그린라인 연장선 개통일

이전에 스콰이어스브리지 수리를 완료하지 않았는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라인 연장선의 개통은 그동안 수차례 연장되어 왔었기에 더욱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교통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하고 이 공사는 지난 찰리 베이커 주지사 정부에서 진행했던 것이라고만 답했다.

지난 베이커 정부에서 그린라인 연장 마지막 단계를 맡아 진행했던 고속도로국 조나단 걸리버 국장은 25일간의 폐쇄일정이 교통서비스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콰이어스브리지에는 매일 4만여대의 차량

이 통과하고 있으며 유니온 스퀘어 역에는 매일 1550명의 승객들이 전철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그린라인 노스스테이션과 거버먼트센터 스테이션 부분이 9월 18일부터 25일간 폐쇄된다. MBTA는 이 폐쇄가 현재 계속해서 연장되어 온 거버먼트센터 주차장의 붕괴작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서틀버스를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그린라인 폐쇄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향후 영향력에 대한 설명회를 9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머빌 공립도서관에서 개최한다.

hsb@bostonkorea.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급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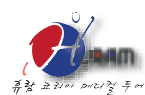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주)제이투케이컴퍼니
협력업체



올스턴서 BU학생 7만달러 비올라 도둑맞아

같이 도둑맞은 아이패드, 여권, 크레딧카드 등은 남기고 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보스톤 경찰은 7만달러 상당에 달하는 비올라를 올스턴 소재 아파트먼트에서 지난 27일 밤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이웃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비올라는 지난 27일 새벽 2시에서 오후 3시 50분 사이 120 글렌빌 에버뉴 아파트먼트 빌딩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사라졌다.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도둑을 맞은 품목에는 아이패드 프로와

옷이든 가방, 그리고 여권 및 크레딧카드도 포함됐다.

그러나 비올라 외에 모든 분실물들은 빌딩 뒷편에 남겨져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

7만달러 상당의 비올라는 보스톤 대학과 비비언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검정색 비올라 가방에 담겨 있다. 이 가방도 \$1,300달러에 달한다고

보스톤 경찰은 27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전화를 받았으며 이 전화를 건 피해 남성은 토요일 밤 10시께

아파트를 떠났다가 일요일 오후에 돌아왔다.

이 피해 남성은 “나머지 물건들은 아파트먼트 빌딩 뒤에 열린 채로 남겨져 있어 이를 회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보스톤 경찰에 따르면 이 비올라는 갈색으로 16.5인치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617-343-4256으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환자 2명 발생

8-9월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모기 물림 가장 많아 최근 채집된 모기에서 WMV감염 모기들 급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올해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환자가 2명 발생했다.

매사추세츠 주 보건부는 29일 타주에서 모기에 물렸던 70세의 여성과 미들섹스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의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레이트 보스턴 지역(미들섹스카운티, 노퍽 및 서퍽 카운티)과 버크셔, 브리스톨, 햄프셔, 플리머스 그리고 우스터 카운티의 경우 웨스트나일바이러스 위험도를 보통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골드스타인 보건부 장관은 “8월과 9월은 가장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모기에 감염되는 시기”라고 말하고 “올해 WMV감염 모기들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상태이며 최근 채집모기에서 WMV 양성 반응

을 나타내는 감염모기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매사추세츠에서는 총 8명이 감염됐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WMV는 모기가 물어서 병균이 인간에 전파되는 질병이다. 모든 연령대가 감염이 되지만 특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감염도가 높다.

WMV에 감염되면 고열과 감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아주 드물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비록 여름은 곧 끝나지만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모기는 앞으로 몇 달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 감염병리학자 캐서린 브라운 박사는 말했다. 모기퇴치제를 상용하거나 긴팔옷을 입어 모기 물림을 줄여야 하며 각종 모기 방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브라운 박사는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 (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극장 몰려든 청소년들 보스톤서 집단 난동, 경찰까지 폭행

시네마데이 할인 극장 상영 후 청소년들 집단 싸움 13명 폭행 혐의로 체포, 17세 이하의 청소년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국 '영화의 날' 을 맞아 극장들이 27일 입장료를 \$4로 할인 하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극장을 찾아 영화를 관람한 후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보스톤 사우스베이 쇼핑센터에 있는 AMC극장 밖에서 약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집단 싸움을 벌이며 극도의 혼동상황을 만들었으며, 출동한 경찰들을 둘러싸고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얼마 있지 않아 AMC보스톤커먼 19극장에서 영화상영이 끝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약 150명의 청소년들이 또다시 집단 난동을 벌였다. 한 청소년은 자 위로 뛰어 올라 발을 굴렀으며 일부는 진압하려는 경찰과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은 13명의 청소년들 폭행 및 무질서 행위로 체포했다. 마이클 카스 보스톤 경찰서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행위는 어린이들의 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 라고 경고했다.

보스톤에서는 이 같은 청소년들의

집단 난투극뿐만 아니라 같은 27일 열린 도체스터 캐리비언 페스티벌에서는 8명이 총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스엔드의 세인트 앤소니 페스티벌에서는 보스톤 외부에서 방문한 청소년들이 행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청소년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코즈 프로젝트 대표의 대표는 "이 같은 청소년들의 행위는 시와 주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고 밝혔다.

코즈 대표는 청소년들이 군중에 묻혀 자신들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난투극을 벌였다고 단체, 학교, 경찰 등이 이들이 누군지 밝혀내고 부모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내셔널시네마데이로 \$4극장 관람이 있었던 27일 오후 5시 난투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은 사우스베이 AMC극장에 출동했다. 400여명이 넘는 청소년들의 통제가 불가능해지자 보스톤 경찰은 다른 지역구

는 물론 주 경찰의 지원까지 요청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관련 청소년들을 체포하려 하자 청소년들은 경찰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12에서 17세에 달하는 5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을 체포했다. 경찰은 부모들의 입회하에 이들을 방면했으나 이들은 청소년 사법기관에 기소된다.

보스톤 커먼 극장에도 경찰은 밤 11시에 패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청소년들은 도로에서 차량과 행인들을 막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곳곳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노력했다.

이 가운데 한 커플은 청소년들에게 잡혀 바닥에 넘어져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전화기 크레딧카드, 지갑 등을 빼앗겼으며 남성은 주머니에 있던 \$20가량의 현금을 탈취당했다.

경찰은 두 극장에서 모두 청소년들에게 공격을 당했으며 한 경찰은 목이 졸리기도 했다. 보스톤커먼극장에서는 13세의 남학생, 14세 남학생 2명, 그리고 14세와 16세 여학생이 체포됐다.

각스 보스톤경찰서장은 부상당한 경찰들은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말하고 경찰들이 끝까지 "절제" 하고 "프로페셔널한 진압" 을 수행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각스 서장은 "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 며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 달라. 경찰은 결코 베이비시터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아시아들 타인종보다 영구 화학물질 노출 훨씬 심각

PFAS 노출 정도 인종별 차이...아시아계가 백인보다 88% 높아 아시아인들이 유독 노출 높은 이유는 밝히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계한 기자 = 미국내 아시아계가 다른 인종에 비해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NBC 뉴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마운트시나이 의과대학 연구팀은 지난주 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과불화화합물 중간값이 백인보다 88%나 높았다고 밝혔다.

과불화화합물은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열에 강해 늘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나 식품 포장재, 섬유 의류 코팅, 의료장비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인다.

하지만 '영구 화학물질(Forever Chemical)'로 불릴 정도로 자연분해가 어려우며 인체나 동물,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규제를 추진 중인 물질이다.

연구팀은 통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PFAS에 대한 누적 노출이 커지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감안해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노출 수준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논문의 제1 저자인 셸리 리우 부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PFAS와 관련해 아시아

계 미국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우 부교수는 인종별로 PFAS 노출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아직 알지 못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 때문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유독 높은 노출 수준을 보이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자의 모국이 서로 다른 PFAS 규제를 가지고 있는 점과 식이 요인과 같은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했다.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수석 연구원인 애나 리드도 PFAS 오염 가능성이 큰 민물고기의 경우 아시아계 의 섭취량이 가장 많으면서 문화와 식이 요인이 인종별 노출 수준의 차이를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우 부교수는 미국 내 합성 화학물에 대한 규제 미비로 PFAS 노출을 줄이는 것이 매우 힘든 실정이지만 그래도 메인주 등에서 관련 규제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메인주는 최근 제조업체들에 제품의 PFAS 의도적 함유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오는 2030년부터는 아예 의도적으로 PFAS를 첨가한 제품의 주내 판매를 금지했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유에스 뉴스 선정, MA주 공립 고등학교 또 미국내 최고

▶▶1면에 이어서

에서 매사추세츠의 공립고는 그동안 줄곧 가장 많은 비율로 상위 25% 내를 유지해왔으며 올해도 최고를 유지했다. 올해도 전국 순위에 선정된 348개 학교 중 164개 고교, 즉 47.1%가 미국내 상위 상위 25%안에 포함됐다.

미국내 상위 25%안에 30% 이상이 포함된 주는 매사추세츠, 커네티컷을 비롯, 뉴저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메릴랜드, 뉴욕, 네바다, 콜로라도, 버지니아 등 10개 주에 불과했다.

2023년 순위 산정을 위해 유에스뉴스는 총 2만5천여 고등학교를 AP IB 시험 성적을 통한 대학준비도, 각주별 학력평가 졸업합격 성취도, 주별 학력평가 성적, 흑인·라티노·저소득층 성적, 대학커리큘럼채택정도, 졸업율, 6개 항목으로 평가했으며 이중에 1만7천680개 고교의 순위를 정했다.

특히 유에스뉴스는 각종 순위산정시 종합적인 평가보다는 성적에만 집착한다며 하버드 등 상당수의 우수 학교에 순위 집계 참여를 거부했던 것을 고려해 흑인·라티노·저소득층 성적을 종합 집계에서 10%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국 및 매사추세츠 주 고등학교 순위산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었다. 특히 차터스쿨과 마그넷스쿨(Magnet school; 특수목적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매사추세츠 순위에서는 헤이들리 소재 파이어니어밸리차이니스이머전차터스쿨이 파격적으로 올해 2위로 발돋움하며 미국내 57위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벨몬트 고교, 액튼-박스보로고교가 약진했다.

또한 지난해 30위 권에 들지 못했

던 그로톤 하이와 콩코드칼라일 하이가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이와 반면 매사추세츠 최악의 학군은 보스톤, 스프링필드, 첼시, 로웰, 린 등이었다.

다음은 매사추세츠 주내 공립고등학교 순위다.

2023 US News순위

1. Boston Latin (No. 50 nationwide)
2. Pioneer Valley Chinese Immersion Charter School, Hadley (No. 57 nationwide)
3. The Bromfield School, Harvard (No. 154 nationwide)
4. Sturgis Charter School, Hyanis (No. 179 nationwide)
5. Dover-Sherborn Regional High School (No. 189 nationwide)
6. Lexington High School (No. 221 nationwide)
7. AMSA Charter School, Marlborough (No. 253 nationwide)
8. Belmont High School (No. 290 nationwide)
9. Acton-Boxborough Regional High School (No. 338 nationwide)
10. Weston High School (No. 355 nationwide)
11. Mystic Valley Charter School, Malden (No. 402 nationwide)
12. Boston Latin Academy, Dorchester (No. 403 nationwide)
13. Hopkinton High School (No. 439 nationwide)
14.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Everett (No. 472 nationwide)
15. Wellesley High School (No. 539 nationwide)

16. Medfield Senior High School (No. 545 nationwide)
 17. John D. O'Bryant School of Mathematics and Science, Roxbury (No. 568 nationwide)
 18.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2, Saugus (No. 606 nationwide)
 19. Needham High School (No. 656 nationwide)
 20. Westwood High School (No. 671 nationwide)
 21. Cohasset High School (672 nationwide)
 22. Sharon High School (No. 678 nationwide)
 23. Groton Dunstable Regional (No. 693 nationwide)
 24. Wayland High School (No. 696 nationwide)
 25. Concord Carlisle High School (No. 711 nationwide)
 26. Norwell High School (No. 714 nationwide)
 27. Westford Academy (No. 727 nationwide)
 28. Manchester Essex Regional High School (No. 756 nationwide)
 29. Winchester High School (No. 759 nationwide)
 30. Excel Academy Charter School (No. 770 nationwide)
- 2022년 US News순위 MA 상위 30개 학교**
1. Boston Latin School
 2. Advanced Math and Science Academy Charter School
 3. Sturgis Charter Public School
 4. Lexington High School
 5. John D. O'Bryant School of
 6. Boston Latin Academy
 7. Dover-Sherborn Regional High School
 8. Mystic Valley Regional Charter School
 9. The Bromfield School
 10. Weston High School
 11. Hopkinton High School
 12. Westwood High School
 13. Belmont High School
 14.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2 (PCSS-2)
 15.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16. Excel Academy Charter School
 17. Match Charter Public School
 18. Acton-Boxborough Regional High School
 19. Hampden Charter School of Science
 20. Medfield Senior High School
 21. Winchester High School
 22. Community Charter School of Cambridge
 23. Manchester Essex Regional High School
 24. Sharon High School
 25. Westford Academy
 26. Lynnfield High School
 27. Needham High School
 28. Boston Collegiate Charter School
 29. Lenox Memorial High School
 30. Wayland High School
- 2023년 US News 상위 10개 학교**
1. The Early College at Guilford (NC)
 2. Signature School (IN)
 3. School for Advanced Studies (FL)
 4. The Davidson Academy of Nevada (NV)
 5. Thomas Jefferson High School for Science and Technology (VA)
 6. The School for the Talented and Gifted (TX)
 7. Tesla STEM High School (WA)
 8. Academic Magnet High School (SC)
 9. Oxford Academy (CA)
 10. Payton College Preparatory High School (IL)
-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내 고교 2순위로 급등한 헤이들리 소재 파이어니어밸리 차이니스 이머전 차터스쿨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은행 주차장에서 5천달러 주운 남성, 횡재가 쇠고랑될 위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커네티컷주 트럼블에 거주하는 로버트 워싱턴씨는 커네티컷 은행 주차장에서 \$5,000이 담긴 봉투를 주웠을 때 완전 로터리 당첨, 즉 횡재라고 생각했다.

트럼블 경찰의 시선은 달랐다. 이 57세의 남성이 주운 돈은 타운의 세금으로 은행에 디포지트 될 예정인 돈이었으며, 이 행위를 절도라고 보았다.

한때 행운의 아침이었다고 생각했던 3개월 후 워싱턴씨는 3등급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5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오랫동안 조사를 받고 당일 바로 풀려났으며 9월 5일 재판에 출두할 예정이다.

트럼블 경찰은 성명서에서 현금 봉투에는 “소유주가 트럼블 타운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다수의 서류가 들어있었다.”며 “그는 돈을 간직했고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워싱턴 씨는 지난 5월 30일 이 돈을 주워갔음을 인정했다. 다만 워싱턴 씨는 현금 봉투에서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며 “(돈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획하고 훔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순간적이었으며 마치 복권 당첨과 같은 것이었다”고 그는 커네티컷의 언론사인 트럼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유죄가 입증되면 워싱턴씨는 1년에서 최고 5년 감옥형과 \$5,000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 조련사인 워싱턴씨는 5월 코로나바이러스에서 회복했으며 5월 30

일 은행에 들렀다고 밝혔다. 오전 9시 30분께 은행에서 나오다 경찰이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후 그 주차장에서 현금이 가득 찬 돈봉투가 있는 것도 발견했다.

경찰관은 신경을 다른 데 두고 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자 그는 봉투를 들어 팔에 쥐고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는 “하루 일과를 순간 끝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누구의 돈인지 몰랐다. 내가 본 것은 현금 다발이었을 뿐이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 봉투는 타운 직원이 잃어버린 것이었다. 트럼블 세금납세처 직원은 은행에 이를 입금하려 갔지만 이 봉투를 잃어버렸으며 은행에서 이것을 분실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수개월에 걸쳐 조사했으며 워싱턴씨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이 돈봉투는 부지불식간에 바닥에 떨어졌고 이것을 워싱턴씨가 주워간 것”이라고 경찰 측은 주장했다.

워싱턴씨는 “만약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바로 돌려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커네티컷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씨는 범죄기록이 없으며 결코 훔치고자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 주차장에서 돈을 주운 것 외에 잘못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공짜돈인지 알았는데 지금은 다시 되갚아야 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보건부, 대마 마약류 위험등급 하향 권고...경고 목소리도

중독위험 보통·낮음 재평가...연방정부 차원 합법화 되나 학계 신중론 지속...특정 질환자 도움돼도 다른집단에 유해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최재서 기자 = 미국 보건 당국이 현재 헤로인처럼 중독위험이 큰 마약류로 평가되는 대마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마약단속국(DEA)에 권고했다.

DEA는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대마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속해 있다.

HHS는 DEA에 대마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HHS는 대마에 대한 과학, 의료 평가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관련법상 마약 등급 분류의 최종 권한을 가진 DEA에 전달했다고 HHS 대변인이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50개주와 수도인 워싱턴DC 가운데 거의 40개 주(州)에서 대마를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했지만, 나머지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완전 불법이다.

연방정부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대마 판매 기업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으며, 대마가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합법화로 가는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마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다.

일간지 가디언은 대마 화합물이 특정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집단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다는 학계 의견을 전했다.

영국의학저널(BMJ)에 게재된 대마와 건강에 대한 2002~2022년 논문 메타 분석 리뷰 결과에 따르면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은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마가 함유된 의약품의 경우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만성 통증과 경련, 염증성 장질환자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 교재가 확실하다!
- 교사진이 확실하다!
- 한국문화가 확실하다!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이높이(Enopi) 교재 사용!
둘째,	교사 경험 3년 이상의 교사 유치!
셋째,	붓글씨, K-POP, 전통놀이, 한국요리 체험학습!

결론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4 years old - 8th grader

BKS 등록금 안내

Tuition: Half Year (15+1/2 Saturdays)

Regular Classes:

- \$335 (one child)
- \$630 (two children)
- \$885 (three children)

개학날: Sep 16, 2023

준비물: 필기도구, 3Ring 바인더, 물병, 스낵

35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23-2024 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요가씨의 5분요가

아침 얼굴 붓기와 뱃살 제거에 딱! 15분 모닝 요가



자기전 야식이나 과식을 하고 자면 아침에 얼굴도 땡땡 붓고 배도 평소보다도 더 볼록 나오는 것 같죠?

가장 좋은 건 저녁을 일찍 마치고 가볍게 산책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바른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쌓이거나 소위 '빡센' 스케줄을 끝내고 나면 밤에 맥주 한잔이 그렇게 땡길 수가 없더라고요. 전날 야식이나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에 꼭 유산소와 가볍게 요가로 몸을 움직여 주세요. 전날 먹은 음식이 살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침 붓기도 말끔히 제거한 후,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동작들은 제 유튜브 채널 '요가워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DAY12) 살빼지는 요가 | 아침 얼굴 붓기... 편을 찾아 따라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Quad + Hamstring Stretches : 허벅지 스트레칭, 다리 토닝 효과, 허리통증 개선, 코어강화

1단계 네발기기 자세 (테이블 포즈)에서 한 다리를 뒤로 뻗었다가 사진과 같이 무릎을 가슴쪽으로 끌어당깁니다.

2단계 호흡을 내쉬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위의 동작을 5회 이상 반복해주세요



3단계 이번엔 뒤에 있던 발을 앞으로 가져가 두 손 사이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다리를 뻗어줍니다.

4단계 앞의 무릎을 다시 접고 피고기를 5회 이상 반복한 후, 반대방향도 1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주세요.

TIP! 허벅지 앞뒤가 대부분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요. 손이 바닥에 잘 닿지 않는다면 한 손을 벽에 가져가 균형을 잡고 스트레칭해보시길 바랍니다.



2. Head Standing Preps : 전신 근력 강화, 얼굴 다리 붓기 제거,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개선

(영상 안의 제 큐잉에 맞춰 안전하게 단계별로 진행해주세요)

1단계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머리 꼭대기(정수리)를 깎지 낀 두 손 사이에 넣은 후 엉덩이를 높게 들어 다리를 뻗어줍니다.

2단계 무릎을 접어 내렸다 퍼면서 올렸다가 5회 이상 반복하세요

3단계 천천히 두 발로 얼굴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걸어갑니다.

4단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발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무릎을 접어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중급 이상)

5단계 엉덩이가 어깨 위로 올라올 수 있다면 다른 다리도 접어 두 발을 모두 매트에서 떼어봅니다. (벽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중급 버전)

TIP! 머리서기 자세는 처음에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많이 망설여지는 요가 자세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까지 상



당한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므로 그전까지는 벽에 가까이 가서 안전하게 연습하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헤드스탠드를 기초부터 탄탄히 배워 성공하고 싶다면 제 유튜브에 머리서기 튜토리얼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해당 영상 설명란 링크!)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 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친구추가' 한후 먼저 인사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UNG-YANG DOO-AN DUBLU BOSTON HAN-IN-SEONG-DANG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도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현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yahoo.com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깡코 바이오웍스 구글과 협력 신약발견 인공지능 모델 개발

5년간 2억8천9백만달러 지급, 구글클라우드 및 AI 서비스 받기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보스톤 소재 바이오 회사 깡코바이오웍스(Ginkgo Bioworks, 티커 DNA)는 29일 합성 바이오 어플리케이션 및 신약 개발을 위한 자체 AI 모델을 구글과 협력하여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깡코 측은 현재 대형언어모델인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이지만 신약 발견을 위해 전문화된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글과 5년간 계약을 맺어 구글 클라우드와 AI 모델링관련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에 따르면 깡코는 구글에 첫째 8백만달러에서부터 시작해 마지막에는 1억1천3백만달러까지 매해 증액되는 양의 금액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깡코가 지불하는 총 금액은 2억8천9백만달러이다. 구글은 깡코측이 사업 목표를 달성할 경우

총 5천6백만달러를 향후 3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깡코는 구글의 버텍스 AI (Vertex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자체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게 되며 이는 광대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되는 단백질의 결합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이 AI모델은 깡코와 깡코의 고객사인 바이오젠 그리고 머크가 이전 실험과 학계 연구로부터의 데이터를 좀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깡코의 제이슨 켈리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제약을 좀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좀더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깡코의 구글과의 합작 뉴스가 전해지면서 회사 주식이 주당 \$2.22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년전 특수목적회사(SPAC)와 합작을 통해 상장했을 때의 가격에 비해서 여전히 약 80%가량 떨어진 상태다.

깡코는 최근 비행기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모니터해 병원을 조기에 발견해 팬데믹 등의 상황에한발 앞서 대처하는 글로벌 면역시스템을 창출하는 바이오시큐리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깡코는 팬데믹과 더불어 지난해 바이오시큐리티 사업부문에서 3억4천4백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깡코의 원래 비즈니스 분야였던 바이올로지 합성 사업부문에서의 1억4천4백만달러의 매출에 비해 훨씬 많은 수입을 안겼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면서 올해 바이오 시큐리티 수익의 큰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올해 주가 240% 상승 · 종가 최고' 엔비디아... "여전히 싸다"

AI칩 수요 폭등으로 향후 매출 전망치 계속 상향 조정, 최고가 \$1,100 예상키도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인공지능(AI)의 최대 수혜주로 대형 기술주 급등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기세에 거침이 없다.

한편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약 240% 폭등하는 동안 상당수 뮤추얼 펀드가 제대로 수혜를 누리지는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30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약 1% 오르며 종가로는 최고가인 492.64달러로 마감했다. 장중에는 499.27달러로 500달러 턱 밑까지 도달했으며, 3일 연속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올해 첫 거래 일인 1월 3일 143달러로 마감한 뒤 올해 무려 240% 폭등했다.

지난 23일 잠마감 후 '깜짝' 분기 실적 발표 이후 25일 하루 조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오름세다. 실적 발표 다음 날인 24일에는 6.5%의 강한 상승세로 장을 열면서 주당 502달러를 넘기도 했다.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저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마켓워치 등이 이날 보도했다.

데이터 분석 및 투자업체인 멜리우스리서치(Melius Research)의 벤라 이츠는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나 너무 비싸다는 말을 듣곤 한다며 아직 다른 거대 IT 종목들처럼 비싸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가 2024년 평균 수익 추정치의 28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아마존이나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낮다며, 엔비디아 추정치는 가장 보수적인 종목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멜리우스리서치는 엔비디아의 목표 가격을 730달러로 제시하면서 '매수' 등급을 부여했다. 월가의 기대치는 643달러다.

로젠블라트 증권 애널리스트 한스모세만은 엔비디아 목표가를 최고가인 1천100달러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매수' 추천 56건, '보유'는 4건이고 '매도'는 한 건도 없다.

이런 가운데 주가 급등에도 편승하지 못한 펀드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모닝스타에 따르면 S&P 500 또는 유사한 지수를 추종하는 약 330개 뮤추얼 펀드 중 엔비디아와 관련해 지수 가중치(index weight) 이상을 보유한 곳은 15%에 불과했다.

평균 이하의 가중치를 보유한 펀드 중 85%가 올해 지수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이외에 칩 수요의 현 수준 지속 여부와 함께 AI 환경의 진전과 관련한 우려가 투자자들에게 경계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인 콰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QCT)는 AI 서버 매출이 내년에 배로 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AI를 운영 및 서비스에 통합하게 되면서 수요가 계속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만 콰타 컴퓨터가 전액 출자한 QCT의 마이크 양 사장은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실제로 AI 붐은 지속될 것이며 앞으로 몇 년간 성장 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속 휘발유 · 중고차 · 병원비가 '숨은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동안 들쭉였던 미국의 물가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휘발유 가격 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떠올랐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앞서 6월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3.0% 오르는 등 이와 비슷하게 집계됐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6월 9.1%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하락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제시한 목표치 2%를 향해 순항하는 분위기다.

NYT도 31일 발표될 7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너지·식품 제외)에 대해 4.2~4.3%로 전망했다.

6월 수치 4.1%보다는 다소 높지만 작년 중반 5.4%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NYT는 주택 임대료 인상 둔화, 중국의 디스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연준의 고금리 정책 등이 당분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휘발유·중고차 가격과의 료비 등이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에 '복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정유공장 폐쇄와 세계적인 생산량 감축 등으로 인

해 한 달 전 갤런(3.78L)당 3.7달러에서 3.8달러 이상으로 뛰었다.

미국 내 평균 휘발유 소매가는 지난해 1갤런당 5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해왔다.

일반적으로 휘발유 가격은 정책 입안자들이 좌우할 여지가 별로 없는 지표라는 이유로 연준 관리들에 의해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은 가계 소비에 매우 중요하고 이 가격이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에 간과할 수 없는 지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cool@yna.co.kr

중환교리이 메디컬 푸어
www.journeye.co.kr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프리고진 암살위험 알았다... "전용기에 갖은 방어장비 · 생존전술"

"외부추적 차단...응답 끄기 · 갈아타기 · 비행 중 목적지 변경" "무장반란 후 보안 한층 강화...러군 연계된 비행장 피해 다니기"

(서울=연합뉴스) 유철중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도전하는 무장 반란을 시도한 지 두 달 만에 의문의 비행기 추락으로 숨진 러시아 바그너 용병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생전에 그런 방식의 암살 위험을 느끼고 치밀한 대비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항공기 추적 서비스인 플라이트레이더24가 제공한 지난 2020년 이후 프리고진의 비행 기록을 분석해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프리고진이 제트기 추락 사고로 숨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항공기가 자신의 암살을 위한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 전용기에 각종 방어 장비를 설치하고 비행 경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소개했다.

프리고진이 자주 이용한 전용기는 브라질산 '엠브라에르 레거시 600' 제트기였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섬나라 세이셸에 본사를 둔 프리고진 연계 회사인 지난 2018년 아일랜드해 브리튼 제도에 속한 영국 왕실령 맨섬에 등록된 회사로부터 이 제트기를 인수한 뒤 항공기 등록지와 관할지는

여러 차례 변경됐다.

제트기에는 외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 전자 차단 스마트창 등의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주로 모스크바 북동쪽의 츠갈롭스키 공군기지나 인근의 민간 공항에서 출발한 그의 제트기는 비행 경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주 '트랜스폰더'(항공교통 관제용 자동 응답 장치)를 껐다.

프리고진은 바그너 용병들이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로 갈 때는 2~3대의 제트기를 갈아타는 치밀함을 보였다.

바그너 그룹이 국방부를 비롯한 러시아군 지휘부에 반대해 일으킨 지난 6월의 무장반란이 실패로 끝난 뒤 프리고진은 주변 보안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러시아군과 연계된 모스크바 공군기지나 다른 군용비행장 이용을 중단했고, 비상사태부가 제공하는 정부 제트기도 이용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아프리카로의 마지막 여행 때는 모스크바에서 30km 이상 떨어진 한적한 민영공항을 이용했고,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에야 승객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처럼 치밀하고 철저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르홉스코예' 공동묘지에 조성된 프리고진 묘

예방 조치들도 그를 과멸로부터 구하기엔 충분치 못했다.

아프리카로의 마지막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지난 23일 모스크바에서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기 위해 엠브라에르 레거시 600 제트기에 몸을 실었고, 항공기는 이륙 직후 추락했다.

추락 지점은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방향으로 약 300km 떨어진 트베리 지역의 쿠젠키노 마을로,

푸틴 대통령의 호화 관저가 있는 발다이 지역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프리고진을 비롯한 탑승객 10명은 신원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탄 채 숨졌다.

잡범 전과자에서 유력 사업가로 변신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되고 결국엔 '보스'에게 도전한 내부 배신자로 낙인찍히기까지 영욕의 삶을 산 그는 29일 가까운 친지와 지

인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묘지에 묻혔다.

러시아 당국은 제트기 추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그 원인과 관련한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사고 현장 보존에 관한 국제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추락 현장을 불도저로 밀어버렸다고 WSJ은 전했다.

besthope@yna.co.kr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오염수 방류 일주일 수산업 '선방'...회복 '온도차'는 있어

산지 어시장, 비교적 견조한 수요...고수온 겹친 양식업은 타격 커
횡집은 지역별 차이..."불안감 있지만, 소비 촉진 캠페인 등 기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백나용 기자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에서는 당초 우려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산물 산지 어시장에서는 비교적 견조한 수요 속에 큰 가격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 지역 수산물 축제들도 무사히 치러졌다.

하지만 오염수 우려에 고수온이 겹치며 양식 어민들 피해는 컸고, 온도차는 있지만 지역 횡집들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여전히 소비 촉진 캠페인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전국 수산물의 30%를 유통하는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들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전후로 주요 수산물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오염수 불안이 선반영된 탓에 일부 수산물 가격이 최근 두 달간 10~20% 떨어지기는 했지만, 오염수 방류 전후로 부산공동어시장 10대 품목에는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가자미, 방어, 눈볼대, 삼치 등은 새벽 경매에서 낙찰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전갱이나 갈치, 오징어 등은 등락 폭은 보이지만 물건의 품질 차이로 인한 변화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열린 전국 수산물 축제장에도 당초 걱정과 달리 인파가 몰리며 상인들이 안도의 한숨

을 내쉬었다. 지난 29일 부산 강서구 명지시장에서 열린 '제21회 명지시장 전어 축제'에서는 첫날 준비한 전어가 1~2 시간 만에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지난 25일 개막한 제22회 마산어시장 축제도 1만5천명이 축제장을 방문해 비교적 잘 마무리됐다.

준비한 전어가 소진돼 추가 물량을 공급하기도 했고, 매출액도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도 분명히 잇따르고 있어 수산업계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출하를 못 하거나 늦춰진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생물이 고수온에 집단 폐사하는 일이 이어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도내에서는 강도다리, 넙치, 범가자미 등 양식어류 71만5천마리가 폐사했다.

전남 여수에서는 양식장 물고기 105만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되기도 했다.

물 위로 떠 오른 죽은 우럭을 양식업자들이 건져내고 있지만, 그 밑에 20~30가량 쌓여있을 수많은 죽은 우럭은 손댈 엄두조차 못 낼 정도로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 따라 온도 차이는 있지만 횡집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강릉 동해안 횡집과 수산물 시장



31일 오전 제주도 동문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갈치와 옥돔 등 수산물을 보고 있다.

상인들은 방문객이 30%가량 줄었다고 말하고 있고, 오염수가 방류된 지난 주말 강릉 주문진 시장에는 단체 관광객이 없어 매우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북 포항 죽도 시장에서도 오염수 방류로 손님이 대폭 줄었고, 대전 지역 수산업자 중에는 오염수 불안에 아예 업종을 바꾼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면서 회복 기대감은 그래도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동해안 6개 시군과 함께 내달 5일 수산물 할인 특관전을 열 예정이고, 10월 말에는 대형 백화점에서 수산물 판촉전을 하기로 했다.

경남도도 수산 식품 소비를 위해 쿠팡과 함께 판매 기획전을 준비했

고, 경북 포항시장은 수산물 시장 인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손님 잡기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도 부산 자갈치 시장 등 수산물 시장에서 구매 가격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김재석 부산자갈치어패류조합장은 "불안감은 여전히 크지만, 정부의 강력한 수산 촉진 정책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수산물 쿠폰 등의 정책을 하면 매출이 반짝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기대하고 있고, 상인들이 위기 상황에 쓸 수 있는 저리 대출 등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해용, 나보배, 손대성, 장덕중, 이주형, 차근호) ready@yma.co.kr

이재명 대표, 무능 폭력 정권에 무기한 단식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SEP. 1st - SEP. 7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SHRIMP-LY THE BEST GARLIC SHRIMP SKEWERS

Labor 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it's the perfect time to fire up the grill and munch on these garlic shrimp skewers!
 H 마트와 함께 준비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마늘 새우 꼬치로 특별한 노동절 바베큐파티를 만끽해보세요!



White Nectarine 백천도 LB \$2.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Papaya 파파야 LB \$1.29	Kabocha 단호박 LB \$1.49	Mineola Orange 미네올라 오렌지 EA \$1.49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Seedless Orri Mandarin 씨없는 오리 만다린 LB \$2.9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3.99 FOR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9.99	Fresh Beef Tenderloin 생 소안심 WHOLE/LB \$9.99
Fresh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SLICED/LB \$7.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6.99
Frozen Pork Shoulder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목전지살 (불고기용) LB \$4.99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사태 LB \$2.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Dried Dasi Anchovy 통통배 다시 멸치 PRODUCT OF KOREA 2 LB/PKG \$18.99	TONGTONGBAY Frozen Beltfish 통통배 The 맛있는 갈치 14 OZ/PKG \$5.99
Frozen Abalone 전복 LB \$12.99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5.99
Headless Wild Prawn 머리없는 자연산 대하 U15/LB \$17.99	Frozen Snapper 훈도미 LB \$8.99

FR/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SMART CARD MEMBER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4.99	CHUNG 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7.05 OZ \$6.99
HAIJO Premium Roasted Seaweed 해오름 반도독 파래/다래 도시락김 ORIGINAL/GREEN LAVER 0.15 OZ X 8 EA/PKG \$2.99	JINGA Salad Dressing (for Scallion/Onion) /Gyoza Sauce (for Dumpling) 진가 파채양념/양파절임/교자소스 10.22-10.58 FL OZ \$1.99

ORGANIC FARM Organic Brown Sweet Rice 유기농장 현미찹쌀 15 LB \$34.99	NONGSHIM Shin Bowl Noodle Soup 농심 신 사발면 3.03 OZ X 12 BOWLS/PKG \$13.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	HAIJO Premium Roasted Seaweed Sheets 해오름 두번구운 김밥김 20 SHEETS 1.41 OZ 2\$5 FOR	CHUNGJUNGONE O'Food Mild Ssamjang Original Seasoned Soybean Paste 청정원 오후드 고소하고 담백한 쌈장 6 OZ \$1.99
ESENCIA Grape 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33.8 FL OZ \$6.99	HANSANG Seasoned Small Octopus 한상 동우 얼짱 주꾸미 1.43 LB \$16.99	JONGGA Authentic Korean Cold Noodles 종가집 한흥식 비빔/평안도식 물 냉면 SPICY SAUCE - 27.51 OZ BEEF BASED BROTH - 13.4 OZ \$3.99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르셀 궁중당면 골드 1.5 LB \$3.99	CHUNG JUNGWON Luncheon Meat 청정원 런치미트 12 OZ \$2.49
KOALA Butter Flavour Crown Snack 코알라 빵이요 골드 10.65 OZ \$2.99	HAIITAI Homerun Ball Chocolate Snack 해태 홈런볼 4.52 OZ \$2.99	KüHAUS Electric Glass Kettle 쿠하우스 전기 유리 주전자 WHITE/BLACK 1.7L \$27.99 \$19.99 EA	HELLO HOME Disposable Roll Type Scrubber 헬로홈 생활공작소 클라보 일회용 수세미 DEEP GREEN/BEIGE \$6.99 \$4.49 60 SHEETS EA	Gas Burner 가스렌지 가스렌지 PINK \$37.99 \$27.99 EA

전통 먹거리 문화의 명가 - **반찬단지** 한국 인기 브랜드인 반찬단지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품질의 차별성과 기술의 바탕으로 고객의 식탁을 책임지는 반찬단지는 한국 전지역 전통시장 및 단체급식,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함으로써 맛으로 인정 받았으며, HACCP, ISO22000, FSSC22000 등에서 인증받아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 준 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un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cass@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이애나 김
617.271.200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무리 김
978.434.2043
muri@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91
nikipark@prg.com



피터 박
617.780.7835
peterpark@prg.com



지나 최
978.866.3248
jina@bostonpremierrealty.com



여 윤 주
401.935.3397
yjo@bostonpremierrealty.com



시라 파크
617.88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35.7713
grace@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617.588.8973
hyeon@prg.com



미사 송
213.303.0397
mir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파크
413.507.1402
miki@prg.com



선호 김
617.913.3369
sungho@bostonpremierrealty.com



희진 김
617.877.0387
heejin@bostonpremierrealty.com



미영선
781.850.3412
myeongsun@bostonpremierrealty.com



은숙 김
781.859.1214
Eun@bostonpremierrealty.com



장형 김
617.315.1162
janghyung@bostonpremierrealty.com



이훈 김
617.543.5728
jihoon@bostonpremierrealty.com



래어울 김
617.852.7489
raeeul@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Whyan Yu
617.385.2718
whyan@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322.8979
xian@prg.com



Lu Jiang
240.449.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8.986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3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3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9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9.276.26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3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204.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Angela Zullo
774.288.8199
angela@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595.3409
jacob@bostonpremierrealty.com



이강현
857.280.0434
iang@bostonpremierrealty.com



Anthony Tran
857.288.4659
anthony@bostonpremierrealty.com



Mira Delangre
413.237.1586
mira@prg.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7월 생산·소비·투자 다줄었다...중국·개소세·호우 '복합악재'

차량개소세 종료, 소비·투자 동시 충격...설비투자, 11년 최대폭 감소 기재부·통계청 "일시적 요인 많이 반영...선행지표 개선"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기대만큼 하반기 경기 반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다.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여전한 데다, 여름철 기상악화와 자동차 판매위축이라는 일시적 요인이 크게 반영됐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정부는 "여름철 기상악화와 차량 개별소비세 변동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구조적인 경기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생산 2.3% 감소... "중경 제 부진, 출하 감소"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4월(-1.3%) 감소 이후 5월(0.7%)과 6월(0.0%) 증가 또는 보합을 보였으나 석 달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 5~6월 상반기 조기 집행 기조로 증가했던 공공행정이 7월 6.5% 감소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2.0%)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도 2.0%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의복·모피(28.5%), 전기장비(2.8%), 의약품(3.0%)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

(-11.2%), 기계장비(-7.1%), 반도체(-2.3%) 등에서 감소했다.

제조업은 출하가 전월보다 7.8% 줄면서 재고가 1.6% 증가했다. 재고율은 123.9%로 11.6%포인트(p) 상승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 2월(-15.5%) 이후 5개월 만에 2.3% 감소했다. 반도체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출하가 31.2% 줄면서 전월 감소했던 재고도 다시 4.0%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재고는 재고 수준 자체보다 재고율이 많이 상승했다"며 "기대했던 것만큼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출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월별 변동성이 큰 공공행정을 제외하면 산업생산은 보합 수준으로, 회복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도 물량 중심으로는 반등 조짐"이라고 진단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4% 늘었다.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0.9%) 등 대면 소비가 줄었으나 주식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였다.

◇차 판매위축에 소비지표 휘청...설비투자 급감

소비와 투자 지표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감소에 따른 단기적인 투자조정, 건설경기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부담 등이 소비·투자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상황에서, 지난 6월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종료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매판매액지수는 3.2% 줄며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5.1%, 의복 등 준내구재가 3.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2.1% 각각 줄었다. 특히 승용차 판매가 12.3% 급감했다.

예년에 비해 비 오는 날이 많아 외부 활동이 어려웠던 점도 소매판매 위축에 영향을 줬다.

차량판매 감소는 투자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설비투자는 8.9% 줄어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법인의 자동차 구매 실적은 설비

투자로 잡히는데,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22.4% 줄었다. 기계류 투자는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 심의관은 "승용차 판매 감소가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감소에 공통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건설기성은 0.8% 증가했다. 집중호우로 토목 공사가 3.5% 감소했지만 건축공사가 2.0% 늘었다.

◇동행지수↓·선행지수↑...정부 "선행지표 개선 흐름"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으로 0.5p 내려 2개월째 하락했다.

김보경 심의관은 "수치상으로는 경기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해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

됐다"고 평가했다.

7월 산업활동지표에 일시적 요인이 크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경기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보다 0.4p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기재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비롯해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등 대부분의 선행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이라며 "중국 부동산사태 등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하반기 성장모멘텀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un@yna.co.kr

'세수핑크' 확대일로...1~7월 국세수입, 작년대비 43조원 줄었다

(후쿠시마·도쿄=연합뉴스) 박성진 경수현 특파원 =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세입 예산안보다 모자란 세수 규모는 매달 커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7월 국세 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천억원(16.6%) 줄었다.

7월 국세수입(39조1천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3조7천억원 줄면서 7월까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 누계 감소 폭(39조7천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7월 국세 수입 예산대비 진도율은 54.3%였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7월 법인세는 48조5천억원 걸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천억원(26.1%)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7월 한 달간 법인세수는 세금 환급 등이 늘면서 1년 전보다 3천억원 줄었다.

7월까지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7천억원(15.8%) 감소했다. 7월 세수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천억원 줄면서 감소 폭은 상반기(11조6천억원



)보다 더 커졌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6조1천억원(9.7%) 줄어든 5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7월까지 상속 증여세는 9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9.6%) 줄었다. 7월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2천억원 감소했다.

7월까지 관세는 3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천억원(39.4%) 줄었고 7월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5천억원 줄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천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rock@yna.co.kr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NEW LISTING

PRICE: \$ 1,190,000

Newton Centre. Newton South High School,
역세권 걸어서 Green Line T 까지 5분,
방3, 화장실 2.5, 2790SqFt.

하숙, 홈스테이 비즈니스 최상 위치. 렌트 수익성 좋음.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골프와 인생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나는 골프 메니아나 실력자는 아니다. 그저 주말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한번 운동삼아 취미삼아 골프를 즐기는 그저 초보자의 티를 약간 벗은 골퍼라고나 할까? 해서 골프에 대한 글을 쓴다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일 이긴 하다. 하지만 취미삼아 즐기는 골프와 내가 경험한 미천한 인생 지식이 너무도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 내 스스로 느낀 점을 아무가식이나 과장없이 풀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글이 18번 출간까지 이어지길 기대하며...

1번홀: 골프의 입문

우선 내가 골프를 처음 접하게된 사연 그리고 낯설은 골프채를 쥐고 아무 사전지식 없이 무작정 휘두르던 시절의 이야기 부터 풀어 나가야 할 것 같다.

내가 처음 골프를 접하게 된건 미국 유학 시절 논문도 어느정도 끝내놓고 다음의 인생 여정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기에 골프를 먼저 시작한 친구들의 권유, 말이 권유지 거의 협박 수준으로 개 끌리듯 골프 연습장에 끌려나와 생전 잡아보지도 않은 기다랑고 요상하게 생긴 막대기를 막무가내로 휘두르던 것이 내 골프와의 첫 인연이었다.

골프채를 처음 손에 쥐고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어릴적 골목에서 놀던 자치기 생각하며 공을 힘껏 치기만 하면 될것 아닌가!" 하며 너무도 쉽게 생각했던 생각이 든다. 예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움직이도 않고 땅 바닥에 아주 얽힌 놓여있는 공이 제대로 조준도 안된다. 공을 친다고 친것이 공은 가만히 있는데 뒷 땅을 한 움큼 파지를 않나, 공은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허공만 가르지를 않나, 어쩌다 공을 맞추면 소위 '백사리'라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으로 날아가는 커녕 때굴

때굴 구르기 일수니 "이거 만만한게 아니구나!" 하며 진땀을 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준비없이 달려들다 큰 코 다친 셈이다. 골프의 기본부터 폼을 가다듬고 우선 공을 때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그때 느꼈다.

공에 시선을 집중하고 공을 칠때 까지 아니 공이 골프채에 맞아 자리를 떠나는 순간까지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보지 말고 머리를 쳐 박은채 스윙을 하라는 것이 내 친구 아니 변변치 않은 내 골프 선생의 첫 주문이었다.

2번홀: 사회로의 입문

이제 화두를 돌려내 첫번째 사회입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나의 첫번째 직장은 기업경영 컨설팅 회사였다. 당시 흔치 않던 유학파였고 나름 미국에서 선진 경영기법을 배웠다고 자부하며 어깨 힘 뻗 주고 호기롭게 부서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골프채를 처음 잡을 때처럼 "뭘 별거 있겠어! 배운대로 하면 되겠지"하며 나에게 주어질 거창한 일들을 상상하며 그렇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골프 입문때와 마찬가지로 나의 알량한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내게 주어진 첫 임무는 소위 '가방모찌'라고 하나? 경력 많은 컨설턴트 따라다니며 자료조사 해주고 경영자와 컨설턴트간의 회의 일정, 회의내용을 조율, 정리하는 간단한 업무였다. 업무내용이 이렇다 보니 매일 컨설팅 자료 복사하고 상대 회사와 컨설팅 내용 조율을 위해 팩스 날리고 전화하는 일이 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참고: 이 때는 인터넷은 물론 컴퓨터도 부서에 한대씩 있는 정도였고 팩스가 그나마 첨단 기기였던 시절이다)



이 정도 일이야 눈 감고도 하겠다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자료 들고 회사 공용 OA실로 들어섰다.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얽힌 놓여있는 복사기 앞에 서서 자료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웬걸 이거 맘대로 안된다. 복사하는 소리가 한동안 요란하더니 갑자기 복사기가 멈춰선다. 페이퍼 잼이란다. 영겨있는 종이를 빼줘야 기계가 다시 작동한다고 한다. 뭘로 어떻게 종이를 빼야 하는지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겨우 종이를 빼내 다시 복사기를 돌리니 이번엔 자료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고졸 사환 10분이면 하는 일을 한시간째 붙잡고 앉아있다. 팩스는 또 어떤가! 번호 누르고 원고 집어 넣었는데 OK사인이 떨어지지 않는다. 마냥 기다려 본다. 책상으로 돌아와 업체에 전화를 건다. 컨설팅 일정이 안맞는다. 겨우 조정 했더니 이번엔 고참 컨설턴트가 그날 다른 회사 컨설팅이 있다. 버벅의 연속이었다.

이때 부장이 조용히 내 자리로 온다. "힘들지? 맘대로 안되지?" "내가 왜 너에게 복사하라고 지시했는지 생각해 봤어?" 속으로 대답한다. "그러게 왜 복사나 시키고 있나요? 복사기 기능, 복사기 장애 극복 뭐 이런거 습득하

라고?" 하지만 나도 눈치가 있지... 호기롭게 대답한다. "선배 컨설턴트님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라고 시킨 것 아닌가요?"

부장이 씨익 웃는다. 자료 복사하면서 내용이 무언지 살펴 보았나?, 팩스 넣으면서 어떤 답이 올것인지 예상해 보았나?, 담당자와 통화 하면서 담당자의 성향이 어떤지 파악해 보았나?

이 모든것이 컨설팅 시작을 위한 첫번째 준비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골프의 기본 폼을 가다듬고 골프채를 잡듯이 상대 업체 컨설팅 업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준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다.


컨설팅 시작 전에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원하는 목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모든 업무를 상대에 집중 시켜라.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미리 예단하려고 허튼 상상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라. 이것이 부장의 첫 주문이었다. 마치 골프공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고개 쳐 들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 처럼...

(다음호에 계속)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2023년 가을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정기 교사 연수회

주제: 신기술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2023년 9월 9일 오후 6:00~9:30

장소: ZOOM meeting ID: 853 3400 0121
암호: NE20230909



등록



참가비

교사 1인 \$15
학생/학부모 무료
학교단위로 납부

순서

개회식 (6:00-6:30)

- 개회 및 격려사 NAKS-NE 남일 회장, 모만식 이사장
- 축사: 김재휘 주 보스턴 총영사
- 시상식
 -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소개 및 알림

전체 강연 (6:30-8:30)



6:30-7:30 김택수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겸임교수
국제한국어교육자연구회 이사장
'인공지능과 디지털 놀이로 여는 한국어 수업'
**실습을 위해 ZOOM 수업 들는 용도 디바이스 또는 노트북 1개에
추가로 실습용 디바이스 1개 더 필요, 수업용 디바이스 밖에 없을 경우
노트북으로 참여 하시길 바랍니다.



7:30-8:30 한동만 전 필리핀 대사, 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전 FTA 외교통상교섭본부 대변인
'세계화속의 글로벌 리더십'

분반 강연 (선택수강) (8:30-9:30)

뮤치/기초과정

홍소명 강사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7세까지 모여라,
신나게 놀자!'

초급 이상

박지혜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온라인 세종학당 강사)
'버우는 대로 쫓쫓 기억
되는 한국어 수업'

보조교사 대상

미혜란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샌프란시스코 학술대회 소개 및
차세대 리더 교사로서의
경험 나눔'

* 현장 분반 강연 *

날짜: 9월 9일 오후 2시 이전 장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실
'동백꽃 수목화 체험' 김민희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후원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동포청



NAKS-NE
미사회 및 교장단

보스톤코리아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52) 경제 불황기(Recession) 예측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작년 연준(Federal Reserve Board)이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다. 연속적인 금리 상승은 개인 가정이나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끼친다. 경제가 불황기로 이어진다 해도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 연준의 확고한 의지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경제학자가 2023년에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 불황을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3)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것, 둘째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이나 작은 비즈니스에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경제 불황의 시작은 3대 이유 중 특정한 순서는 없다. 어느 한 곳의 시작으로 불황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자율 상승은 기업에 투자, 신용카드, 주택담보 대출, 개인 용자, 등 갚아야 하는 금액이 커진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소비를 억제하게 하고 사람들이 물건 등을 구

매하지 않으면 기업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고용주가 직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경제가 불황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높은 이자율 상승에도 1년이 지난 후 경제는 큰 어려움 없이 팬데믹 이전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예측과는 어긋난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로 말하면 개인들이 저축, 경기 부양 자금,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자금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은 오히려 물가보다도 더 상승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영업이나 큰 기업의 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기업의 부채도 높지 않았다.

연준은 이자율 상승이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상승을 동반하기에 주택 시장 활성화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고, 주택 소유자의 60%는 4% 미만의 금리를 보유하기에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가는 것을 보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자율 상승이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와 경제학자들도 불황기가 온다는 예측으로 일반 투자자는 주식 투자하는 것을 망설인다.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투자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주식시장 폭락을 준비하거나 폭락을 예측해서 투자하면 주식시장 폭락 자체로 잃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손실한다.” 고 피터 린치(Peter Lynch)의 투자 조언이다.

경제가 앞으로 불황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개인의 저축도 점점 사라지며 빚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가가 조만간 조절된다는 보장도 없다.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특히 주식시장이 어떠한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준에서도 물가 상승이 일시적(Transitory)이라고 언급하며 머뭇거렸던 큰 실수를 기억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 주택융자금을 빨리 갚아야 하는지, 보험이 필요한지, 원금 보장한다는 투자상품의 진실이 무엇인지,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얼마인지, 아이들 학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신용 등급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직장이나 자영업하는 사람이 은퇴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과거 주식 시장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림에 동요 없이 자그마한 자금을 꾸준히 투자하면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3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부잣집에 가서 몸을 팔아 종이 되기로 하고 쌀 10여 섬을 마련하였다. 온종일 그 주인집에서 일을 해 주고 저녁에는 밥을 지어 가지고 와서 봉양하였다. 이와 같이 하기를 3-4일이 지나자 그 어머니가 딸에게 말하기를 “지난 날의 식사는 거칠었으나 밥맛이 달았는데, 지금의 식사는 좋으나 맛이 예전같지 않으며, 간장을 칼날로 찌르는 것 같으니 어떤 일이나?” 라고 하였다. 이에 딸이 사실대로 아뢰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 때문에 너를 남의 종으로 만들었구나!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소리를 내어 크게 우니, 딸도 울어 그 슬픔이 길가는 사람을 감동시켰다. 그때 효종(孝宗)이 놀러 나갔다가 이를 보고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청하여 집의 곡식 100 섬과 옷가지를 실어다 주었다. 또 종으로 산 주인에게 보상하고 양인(良人)으로 만들어 주니, 그의 낭도(郎徒) 수천 명이 각각 곡식 한 섬씩을 내어 도와주었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조租 500섬, 집 한 채를 내려주고 잡역(雜役)을 면제시켜 주었다. 집에 곡식이 많았으므로 빼앗거나 흠쳐가는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담당 관청에 명하여 군대를 보내서 교대로 지키게 하였고, 그 마을을 표하여 ‘효양방(孝養坊)’ 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표를 올려 그 아름다운을 당나라 황실에 아뢰었다.)

효녀 지은이 살았던 한기부는 서라벌의 6부 중의 하나인 한지부(韓祗部)이다. 서기 32년(유리사금 9년)에 종래의 6촌 중의 하나인 금

산가리촌(金山加利村)을 개명하여 배(裴)씨 성을 배정하여 살게 하였다. 지은이 살았던 시기는 진성여왕대이지만 아마도 지은도 배씨였을 개연성이 크다.

당시 화랑의 우두머리 국선 김효종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金夫)의 아버지이다. 효종의 아버지는 김인경이다. 김효종의 미담을 전해들은 진성여왕은 조 500 섬과 집 한 채를 하사하였다. 수천 여명의 화랑도들이 각출한 한섬씩의 곡식을 합치면 지은의 집에는 총 수천 섬의 곡식이 쌓이게 되었다. 이에 진성여왕은 군사들을 파견하여 그 창고를 지키게 하였다. 흠어머니와 함께 두 식구가 먹고 살기엔 지나치게 많은 양의 식량임은 분명하다. 즉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진성여왕의 즉위년에 백성들을 구휼하고 면세정책을 편 것을 좀더 사실적이고 상징적으로 기록했지 않을까...

고려 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진성여왕의 평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그녀는 숙부 김위홍과 결혼하였고, 위홍이 죽은 후 젊은 미남 두세명을 늘 곁에 두고 음란한 성행위를 하였고, 그들에게 요직을 맡겨 결국 국정이 문란해졌다는 것이다. 즉 위홍이 살았을 때는 위홍과 그의 (첫)부인 부호부인(진성여왕의 유모이기도 하다)이, 위홍이 죽은 뒤에는 서너 명의 젊은 총신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러 나라를 어지럽혔기에 도적들이 별따처럼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으로서 ‘시무 10조’ 지어 왕에게 올린 최치원(451)의 기록은 사뭇 다르다. 진성여왕은 사심이 없고 욕심도 전혀 없다. 또한 묘사된 체격과는 달리 병이 많아 한가함을 좋아하였고, 말을 신중하게 하였고, 한 번 뜻한 바는 이루고 마는 굳은 의지를 지닌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삼국유사(빈녀양모조(貧女養母條)에 등장하는 국선 효종(孝宗)을 따라가 보자.

451) 최치원은 6두품 출신으로 12세에 당나라에 유학하였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토황소격문’ 을 지어 당나라 전역에 문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제49대 헌강왕 때 귀국하여 중용되었다. 894년(진성여왕 8년)에 ‘시무 10조’ 를 올려 국정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진골귀족들의 반발로 관직을 내려놓고 난세를 비판하며 전국 각지를 유람하였다. 부산 동백섬 일대를 유람할 때는 그곳의 경관에 반하여 자신의 호를 따서 해운대(海雲臺)라고 이름하였고, 그가 세웠다는 ‘海雲臺’ 석각도 전하고 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는 ‘난랑비서문’ 인데, 거기에는 화랑도의 기원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최치원은 경주 최씨의 (중)시조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金夫)의 아버지는 김효종이다. 김효종은 신라 화랑의 우두머리인 국선이었다. 그가 사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국선이다. 그는 수천 여명의 낭도들을 지휘하며 나라를 보존하고 국력을 회복하는데 혼신을 바쳤지만 결국 나라는 망했고, 그의 아들 김부(경순왕)의 손으로 천년의 사직 신라를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바쳤다.

김효종에 관한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삼국사기(효녀지은전(孝女知恩傳)와 삼국유사(빈녀양모조(貧女養母條)에 기록된 내용으로 다분히 그의 일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삼국사기(열전, 권48)에 실린 ‘효녀지은전’ 의 내용이다.

〈효녀 지은은 한기부의 백성 연(連) 권(權)의 딸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나이 30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아홉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봉양할 것이 없으면 때로는 품팔이도 하고 또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다가 봉양하였다. 그러한 날이 오래되어 고달픔을 이기지 못하여



40 Celebrating **years** **H M A R 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AUG. 31st - SEP. 7th, 2023

**HOT!
DEAL!!**

純 Haru Haru

100% PURE SESAME OIL
56 FL OZ ~~Reg. \$20.29~~

\$10.99 **LIMIT 2**



Pulmuone

**Mild/Jjajang
Ramen** 17-20.6 OZ (**4+1 EA/PKG**)

\$4.99 ~~Reg. \$6.99~~
ONLY AT H MART



**4+1
SPECIAL
VALUE PACK**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 집을 사줄 때의 증여세

요즘 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요즘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요즘 같이 오른 부동산마켓에서 처음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이 집을 사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한국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돈이 있어도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또한 집 소유 명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다.

내가 회계사는 아니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이 칼럼을 쓰니 추후 자세한 증여세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내 및 미국 회계사랑 꼭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한다.

미국에서 부모가 집을 사 주거나 다운페이먼트로 도와 줄 경우는 간단히 편지(Gift

Letter) 한장만 쓰면 된다. 돈을 벌 때 이 돈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는 다 냈으므로 증여세가 여기에 개입되지 않는다. 또 증여세는 1천300여만 달러 이상 증여일 경우만 부과된다.

IRS는 2023년 공식적으로 유산세 및 증여세 한도가 개인당 1,292만 달러로 2022년 1,206만 달러에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증여세가 많다는 말이 많이 들었다. 정확히 한국에서 얼마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는 난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 자녀에게 집을 사 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1. 돈을 보내는 부모에 이름으로 사는 방법 - 시민권 영주권 또 소셜번호(Social num-

ber)가 없어도 집을 살수 있다. 다만 미국 구좌에 집 가격에 5%(자녀 구좌에 있어도 상관없음)가 있어야 계약이 되고 한국에 본인 이름(구매자이름)으로 집 가격이 들어 있는 은행 구좌를 보여 줘야 한다. 계약이 된 후 계약서와 집 감정서를 한국으로 보내면 은행에서 미국으로 구매 가격을 보내준다.

2. 돈을 보내는 부모와 자식에 이름을 함께 공동 명의로 사는 방법 -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하기는 하다. 돈 넘어 올 때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부모 이름만 빼면 자연스럽게 증여가 되는데 부모 이름 빼는 시기는 매매 후 바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서 회계사에게 이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는 알아 보셔야 한다. 고객마다 말씀이 다 달라서 나도 한국법은 잘 모른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비용만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있다. 계약 절차는 같다.

3. LLC를 만들어 LLC 이름으로 사는 방법 - 부모님에 이름으로 미국에 LLC를 만들고 투자 목적으로 미국부동산을 구입한다. LLC를 만들 때 자녀에 이름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같이 넣어야 나중에 깔끔하게 증여가 가능하다. 계약단계는 1번과 같다.

처음부터 자녀에 이름으로만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돈을 미리 미국에 옮겨두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한국은행에서 큰 돈을 가져 올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조금씩 미리 옮겨 놓지 않으시는 이상 어렵다.

자녀가 미국에 산다는 건 직장이 있다는 이야기이니 부모님이 다운 페이먼트만 해 주시고 나머지 액수는 모기지를 얻고 나중에 갚아 주시는 방법도 있다.

위에 설명 드린 방법들은 당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다. 다만 나중에 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각 개인에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꼭 회계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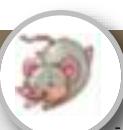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9월 3일 - 9월 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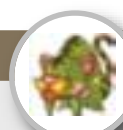
쥐띠 | 가슴을 활짝 펴고

● 운수: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 보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건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기세요. ● 금전: 가슴을 활짝 펴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웅중하게 행동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합니다. ● 애정: 자신이나 상대의 가족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4, 7일 길일, 6, 9일 주의.



소띠 | 희망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

● 운수: 역경 속에서 순풍을 만나 다시 뜻을 달고 망망대해로 나가는 운세의 주기입니다. 적극성과 진취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 금전: 자금 상태가 좋아서 자금 회전이 유리하게 잘 풀려나갑니다. 수지 밸런스도 양호한 편입니다. ● 애정: 뜻이 잘 맞는 상대를 만나서 서로 밝게 웃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적인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 8일 길일, 7, 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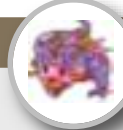
범띠 | 시간을 두고 서서히

● 운수: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면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 금전: 모든 매매하려는 계획은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말다툼이나 오해로 갈등을 겪게 될 징조가 있으므로 매사에 조심하도록 하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6, 9일 길일, 5, 8일 주의.



토끼띠 |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고

● 운수: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로운 개인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을 그르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 금전: 인간적인 면을 따를 것인가 실리적인 면을 따를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애정: 초혼은 아직 인연이 아닙니다. 청혼을 받거나 결혼 말이 오가도 일단 보류하는 편이 좋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5, 6일 길일, 3, 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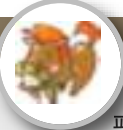
용띠 |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 운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생활이 유지되고 주위로부터 호의적인 제안이 들어옵니다. ● 금전: 거절에 위축되지 말고 또 한번 부탁을 하면 재물도 구할 수 있고 원하면 일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 애정: 현재는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서쪽이나 남쪽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3, 5일 길일, 4, 6일 주의.



뱀띠 | 정리하게 되는

● 운수: 새로운 활력이 생기니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복잡했던 상황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금전: 자부 미뤄지던 일이 차츰 차츰 해결되어 갑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이 있겠습니다. ● 애정: 더는 미루지 말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과감한 결단과 행동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4, 9일 길일, 3,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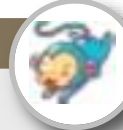
말띠 | 건전한 생각으로

● 운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금전: 지금 이대로 밀고 나가면 고생만 하지 득이 되지 않으니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검토해 보세요. ● 애정: 건전한 생각으로 가정과 자신을 지키도록 하세요. 상대에 대한 의심중이나 신경과민은 점점 더 서로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큰 문제를 부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5, 8일 길일, 3, 6일 주의.



양띠 | 행복감이 깃드는

● 운수: 따뜻한 인정에 행복감이 깃드는 때이니 주위의 도움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게 되겠습니다. ● 금전: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니 계산을 하지 않아도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 애정: 용기를 가지고 솔직한 의사표현을 하면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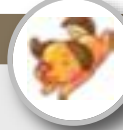
원숭이띠 | 원하는 방향으로

● 운수: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문서 및 계약상의 일에 있어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점차 안정을 갖게 됩니다. 현시점에서의 투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애정: 권태기에 있는 부부나 떨어져 있던 연인 사이에 애정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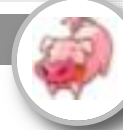
닭띠 | 소리 없이 처리하는 것이

● 운수: 마음의 변화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하세요. 일도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적은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세요. ● 애정: 주위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되는 사랑이 점점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이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



개띠 | 계획성 있는 행동을 하도록

● 운수: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니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세요. 예민해져서 신경성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재물 운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나 상업이나 공업 분야는 브레이크가 걸릴 염려가 있습니다. ● 애정: 들떠서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분별 없는 이성교제는 후유증이 따릅니다. 모임이나 밤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



돼지띠 | 여유 있는 마음으로

● 운수: 인내심이 없으면 그만큼의 삶을 잃게 됩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좋은 결과와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금전: 동이나 서남 간으로 가야 귀한 사람과 인연이 닿습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 애정: 호감을 가지고 이쪽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 6일 길일, 5, 8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net.com 으로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무빙' 강풀 "드라마가 원작보다 낫다는 말에 웃어야 할지"

(서울=연합뉴스)오명언 기자 = "드라마가 원작(웹툰)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으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웃음)"

'순정만화', '바보', '이웃사람', '조명가게' 등 수많은 히트작으로 웹툰 시대를 이끈 만화가 강풀이 이번에는 직접 쓴 시나리오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강풀은 한 시간 남짓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웹툰 '무빙'의 작가이자 동명의 드라마 각본을 쓴 강풀은 "원래 제 작품에 대한 반응을 잘 찾아보지 않는데, 요즘은 매일 인터넷에 '무빙'을 검색한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웹툰 '무빙'을 각색해 완성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은 지난 24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사이트인 플릭스패드를 디즈니+ 시리즈 글로벌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화제를 끌고 있다.

강풀은 "원작과 비교했을 때, 드라마의 서사가 조금 더 풍부하게 그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화에서는 포기했던 것들을 영상에서 구현해낼 수 있었다"며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은 오히려 만화보다 영상 매체가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데 더 제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장주원(류승룡 분)이 100대 1로 싸우는 장면은 만화로 그릴 생각을 하면 아득해요. 언제 그 100명을 그리고 앉아있겠어요. 근데 영상으로는 그게 되더라고요. 훌륭한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해줄 거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믿음을 덕분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죠. (웃음)"



한국형 히어로물인 '무빙'은 초능력을 비밀로 한 채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20부작으로 담았다. 무한재생, 월등한 오감, 비행, 전기발생, 괴력 등의 초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위험에 맞서 감춰왔던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

강풀은 "캐릭터들의 서사가 가장 중요했다"며 "'무빙'에는 기능적으로 쓰이는 캐릭터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짚었다.

그는 "원작자에 작가라는 사람이 모든 캐릭터에 애정을 쏟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

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다"며 "식상한 말로 들리겠지만, 고를 수 없을 만큼 캐릭터 모두를 너무 아낀다"고 말했다.

"인물의 서사를 하나씩 풀어내면 전개가 늘어난다고 느끼게 하기 쉬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재미에 집착했죠. 인물들의 서사를 끝까지 보게 만들려면, 무엇보다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재밌는 건 아닐까' 무수히 고민했죠."

주인공들의 섬세한 감정선에 초점을 맞춘 '무빙'은 강풀 작가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난다는 평을 받는다.

블랙핑크, 북미 앙코르 스타디움 투어 성황...서울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가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의 북미 4개 도시 앙코르 스타디움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30일 밝혔다.

이로써 약 1년에 걸친 이들의 투어 여정은 이제 다음 달 서울 피날레 콘서트만 남게 됐다.

블랙핑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북미 공연을 열고, 약 2시간에 걸쳐 '핑크 베놈'(Pink Venom) · '셧 다운'(Shut Down), '휘파람' 등 히트곡을 쏟아냈다. 공연 말미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다. 다저 스타디움은 약 5만1천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이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벵크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공연했는데, 당시보다 2배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블랙핑크는 "벌써 북미 마지막 공연이라

니아쉽다. 1년 가까이 투어 여정을 함께해 온 멤버들에게 고맙다"며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정말 행복하고 몽클한 시간이었다. 이 순간을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0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똑같은 나이는 있어도 똑같은 인생은 없다!!

사십년지기 어릴 적 친구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눈빛만 보아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만큼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친구가 있어 행복하다. 각자 자기 일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훌쩍 예수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나는 나대로 글을 쓰고 여행을 하며 사진을 담고 산을 오르내리는 일이 삶의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친구는 친구대로 세탁비즈니스를 여럿 갖고 있어 바쁘게 일하고 성실하고 보람되게 사는 멋진 친구다. 이타국에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나의 자랑이기도 하다.

서로 바쁘니 때로는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을 서로 주고받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음을 알기에 서로 보채거나 재촉하는 일이 없다. 무슨 바쁜 일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다 연락이 오면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또 반가워 화들짝 화답한다. 삶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 좋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좋은 가족처럼 편안하고 자매처

럼 정스런 친구다. 이렇게 지내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들도 꽤 많다. 나이 들어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 이리라.

평생에 진정한 친구 한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다. 이 나이 즈음에 가만히 생각하니 내 인생의 반은 성공한 셈이다. 곁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마주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 갖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보따리를 편안하게 펼쳐 놓을 수 있으니 속이 뻥~뚫린다. 서로의 이야기가 다 끝나면 보따리를 쌓았던 보자기는 툭툭 털어서 깨끗하게 정리해 착착 꺼져 놓는다. 서로에게 '인생 상담자와 내담자'가 되어 힐링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 마냥 깔깔거리며 맛있는 거 찾아 먹으러 다니는 말괄량이였다. 내가 미국에 먼저와 2년을 짝꿍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후 몇 년 후에 친구도 미국으로 시집을 왔다. 그때를 생각하니 시댁 가족들이 많아 버거울 때에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

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든든했던 때였다. 친구 역시도 내가 곁에 있어 견딜 만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삶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며 이겨낼 힘을 주었다. 30년이 지난 때를 생각하니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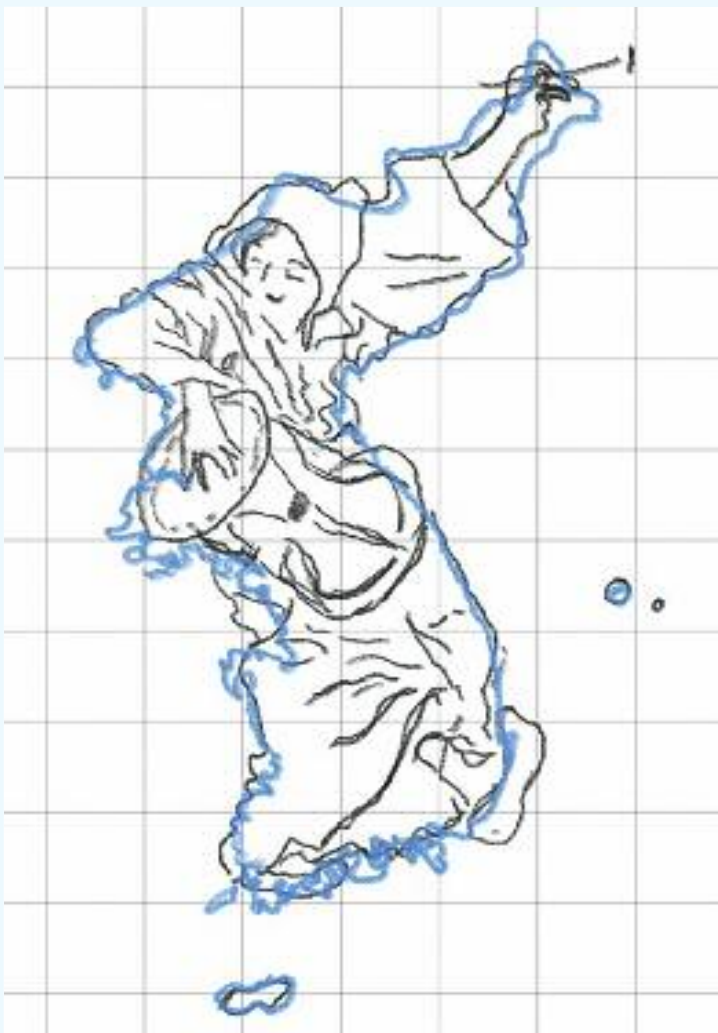
"네가 잘 견디고 잘 지내고 있어 고맙다!" 하고 친구가 며칠 전 만났을 때 전해준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힘겨울 친구를 생각하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짐작으로도 알 마음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를 잘 아는 친구는 내가 아무 곳에 서나 힘들이나 버거움을 표현하지 않을 거란 것까지도 알기에 말이다. 이처럼 어려운 일에도 평정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는 세 아이가 있기도 했지만, 사십년지기 친구가 곁에서 든든하게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삶을 보며 때로는 안쓰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았지만, 잘 견뎌 주니 고마운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고 지내

온 세월이다. 생각해 보면 삶은 돌고돌아서 내가 기쁠 때가 있고 힘들었을 때가 있으며, 친구가 기쁠 때가 있고 힘들었을 때가 있음이다. 이처럼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새옹지마(塞翁之馬)란 옛말이 있지 않던가. 그래서 더욱더 간절할 바람이 있다면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몫이며, 그것이 또한 내일의 나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똑같은 나이는 있어도 똑같은 인생은 없는 것이다. 삶이 서로 다른 만큼이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아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햇살 고운 날에는 햇살이 좋아 감사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와서 기다림을 배우니 감사한 날이지 않은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 지난따스한 날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고 눈이 오면 또 눈이 오는 대로 감사한 날이지 않던가.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이웃나라는 고를 수 없다



김희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다는 거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름하여 고려인의 강제이주인데, 그게 1930년대 말이라 했다. 만주와 연해주에 거주하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던 거다. 숫자는 17만여명에 이른다 했고, 끔직한 도시하나가 온전히 옮겨진 거다.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고려인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탔다.

시 한편이다. 새벽 잠 깨어 차창에 붙어 앉아 별발 하늘을 별발 하늘을 바라본다 깊고 고요한 한 겨울 밤 겨울밤어둔 하늘이 푸른 바닷물 들인 듯 별 발의 별들 투명하여 천연하다

하늘엔 반짝이는 별 발하늘엔 별 떨기 떨기 (한상완 작시,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오래전이다. 이런걸 식민사관이라 하는지 아니면 피해의식인지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남에게 침략을 당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다. 만주를 머리에 얹었고, 일본은 뒷꽂무니에 달고 있다. 한반도가 토끼의 형상이라면 가슴과 배에는 중국대륙을 향해 있는 거다. 일본이야 방파제 역할을 한다만, 거리상 너무 가까운 이웃이다.

이웃나라는 고를 수 없다. 한국 역시 그러했을 지도 모른다. 차라

리 이사갈 수 있다면. 그런데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동네 주위 환경을 나빠도 그냥 살아내야 한다. 나라가 이사갈 방법은 아예 없으니 말이다. 이사갈 수 없다면 척치지 않고 살아야 할까 보다.

유튜브에서 봤다. 흥범도 장군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되었다는 뉴스였다. 장군은 독립운동가였는데, 그 역시 고려인 강제이주 때 일원이었다고 했다. 유해가 돌아올 적에 한국 전투기들이 날개를 저으며 호위했다던가. 전투기 조종사의 경례 모습엔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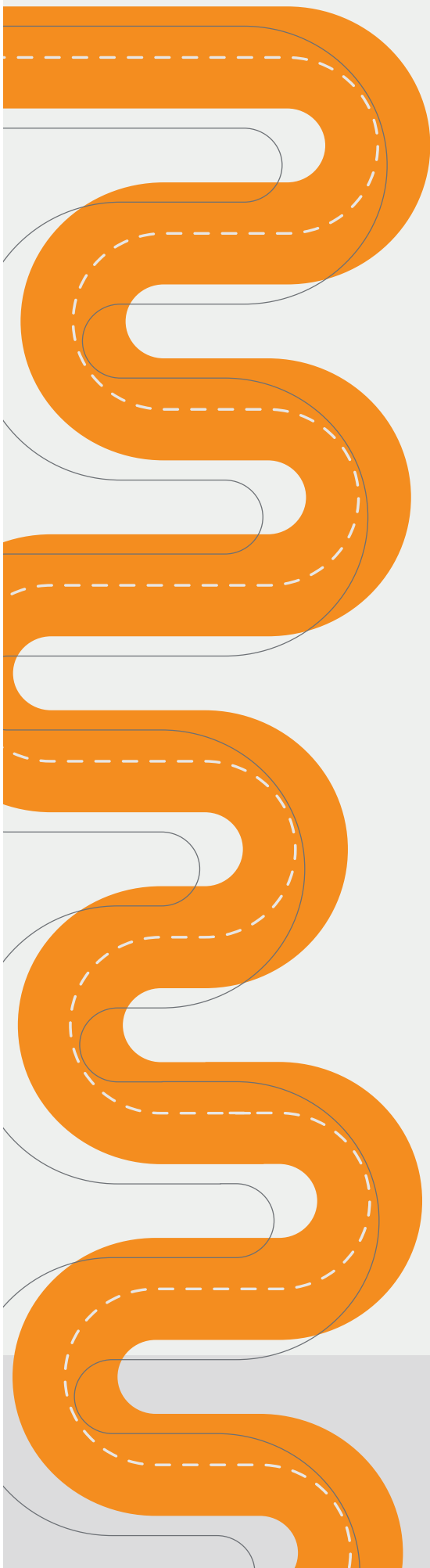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야고보2:8)

이스라엘이 건국 할 당시라 했다. 그게 1920년대 즈음일 텐데, 영국이 제안했다. 새로 건국할 땅을 추천했다는 거다. 아프리카 우간다나 남태평양 한가운데 뉴질

랜드 또는 남미 아르헨티나 중 하나를 고르라 했다. 이스라엘의 대답은 당연한 거절이었던 바, 예루살렘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것. 나라가 통째로 이사 갈 수는 없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세요.



1 단계 필요 서류 준비

#1 신분 및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해외 여권과 출생 증명서 또는 미국 결혼 증명서 두 가지 문서를 제출하세요.

#2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경우, 지원서에 기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SN(사회보장번호)이 발급된 적이 없음을 나타내는 선언서에 서명합니다.

#3 메사추세츠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은행 명세서나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2 단계 등록을 위한 예약은 여기에서 Mass.Gov/MyRM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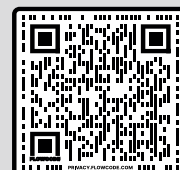


3 단계 연습 면허 시험을 봅니다.



4 단계 Mass.Gov/MyRMV 를 방문하여 도로 주행 테스트 일정을 잡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Mass.Gov/RoadTest 방문하기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ass.Gov/WFMA
방문 또는 전화
857-368-9362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미소랑치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crack)간 내 치아 어떡하나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미소랑치과 강남점 김 성욱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금간 내 치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치아에 금이 가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을 일컬어 ‘치아균열 증후군(Crack Tooth Syndrome : CTS)’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증상들은 질병이지만 그 원인이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의 비중이 더 많다는 특징이 있겠지요. 며칠 전 치과를 다녀와서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내 치아는 너무 아파서 무얼 먹을 수도 없을 정도라면 거의 이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입을 벌려 거울을 자세히 보면 검게 혹은 거무스름하게 잘 눈에 띄는 충치와 잇몸이 붓거나 붉게 변하는 잇몸질환과는 달리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아도 가정에서 이 상태의 원인을 찾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아파서 충치는 아닌 것 같고 대체 이게 뭘까 싶지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파노라마 등 엑스레이를 찍어서 살펴봐도 균열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엑스레이에 잘 보인다면 그건 ‘균열’ 정도가 아닌 ‘파절’ 이 되겠지요. 의사도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이 질환을 진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치아균열 증후군을 이유로 병원을 찾은 분들께 진찰과 진단을 할 때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눈으로 판별이 어렵습니다. 눈으로 판별이 가능하면 그건 치아균열 증후군이 아니라 치아가 그냥 깨져버린 것이니까요. 그래서 증상의 재현으로 진단을 하는데 우선 후기 정도

의 치아는 진단이 아주 쉽습니다. 그냥 건드리면 너무 아프니까요. 하지만 초기 중기의 경우에는 증상 재현을 통해서 가장 통증에 많은 기여를 하는 치아부터 찾아냅니다. 이때 이 정도 금이 간 치아가 있다면 그 인접한 옆 치아에도 균열이 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의해서 반복해서 진단해서 같은 위치에서 통증이 재현되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씹어보기’ 진단법을 잘 사용하는데요. 교과서 등의 여러 책에서는 tooth slooth 혹은 이와 비슷한 도구를 사용하여 금이 간 부위를 직접적으로 물어 통증이 재현되는지를 살펴 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정확도가 비교적 높지만 자극 자체가 크랙을 진전시키는 효과가 비교적 커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용하는 이 ‘씹어보기’ 진단법은 약간은 몽푹하여 진단의 정확도는 비교적 떨어지지만 치아에 위해가 될 만한 자극을 주지는 않는다는 판단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와 중기 정도에는 이 진단법으로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간 치아를 조금 더 지켜보거나, 두 개 이상의 치아에서 모두 증상이 보인다면 두 개 모두 치료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럼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금이 간 부분을 모두 제거해서 깨끗이 한 뒤에 좋은 재료를 안에 넣어 때워주는 치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문제는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이 갔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금이 어디까지 갔는가’에 대한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균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때에는 때우는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력(씹는 힘)이 가해지면 통증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접

착력이 센 재료로 때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접착제라는 재료가 원재료가 가진 강도를 그대로 되살려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균열의 끝이 거의 뿌리 끝까지 내려갔다면 그 균열을 모두 제거하는 순간 치아를 발 거해야 할 것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럼 그 치아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뼈에 부상을 입었을 때 주로 부목을 대거나 깁스를 해서 골절 부위를 고정시키고 1-2달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심하지 않은 골절이나 뼈의 균열은 그렇게 치료됩니다만 치아는 자연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신경세포가 치아 속에 존재하지만 그 세포가 치아를 만들기도 하지만 (2차 상아 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성되는 치아는 신경관 안에서만 가능하고 외부에 한번 노출된 치아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놔둔다고 해서 치료가 되지는 않고 그 상태로 유지되다가 운이 나쁘면 금이 더 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균열이 생겨 통증이 있는 치아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라운(치아를 씌우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라는 틀 속에서 비갈 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가하는 인레이(치아를 때우는) 치료는 만약 균열이 남아있는 경우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가장 좋지 않은 점은 치료가 잘 됐는지 부작용이 날지 예측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바깥쪽에서 둘러싸면서 내재된 균열이 더 벌어지지 않고 저작력(씹는 힘)을 받아도 균열을 벌리지 않는 크라운 치료가 좀 더 적절한 것이지요.

그럼 크라운 치료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씌워 드리면 무조건 치료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 간 정도에 따라서 씌워

도 아플 수 있으며 가장 아픈 치아보다는 덜하지만 근방에도 균열에 의한 약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 접착제로 붙여드리고 일상생활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증상이 소멸되고 쓰실 만하시다면 그대로 다시 강하게 붙여 마무리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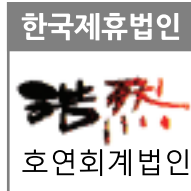
그런데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만약 크라운 치료를 한 치아가 아프다고 확인되면 신경치료를 통해 증상의 소멸을 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라운 치료를 받은 치아는 관찰은데 다른 치아가 아프다면 반복적인 검사로 그 문제를 확인하고 다시 크라운 치료를 추가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요.

그럼 이제 치료가 완료되고 증상도 사라지고 편안해지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나왔으니 걱정 끝만은 아닙니다. 분명 크라운 치료된 치아 내부에는 균열이 남아 있을 것이고 아무리 꼼꼼 동여맸다고 하더라도 강한 충격이 반복되면 균열은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무슨 이유로 내 치아가 금이 갔는지 씹는 습관 등을 점검해 보시고 불필요한 힘은 빼주시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치아균열 증후군으로 고생하실 수 있는 위험을 낮추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crack)간 내 치아 어떡하나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자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TBOplay

한국방송을 저렴하게 시청하는 방법을 아세요?

한국TV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면 지금 보시는 한국방송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Bill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855-826-4636
617-949-1766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a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